

잇단 대형사업 소송...광주시 대응 주목

U대회 선수촌 사용·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등 기아 챔피언스 필드 야구장 주변 주민 손해배상도 계류 중

광주해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 등 광주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1일 광주법원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8월 말 광주고법에서는 U대회 체육관 공사사비 소송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소송은 지역 한 기업 등 4개 업체의 컨소시엄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으로 소가는 8억9500여만원이다. 지난해 1심에서는 원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달 하순 광주지법에서는 U대회 체육관 지하층 층고 조정(8.7m→11m)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2015년 제기된 이 소송의 원고 역시 앞서와 같은 컨소시엄이다. 청구금액은 2억 100만원으로, 이는 전체 24억900만원 중 일부 청구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관 공사와 관련해 지역의 한 건설사는 광주시를 상대로 별첨부와 처분 취소소송도 제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U대회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와 연관된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관급자재 변경(인조잔디 길이 40mm→55mm)에 따른 9억 원대 공사대금(잔금) 청구 권으로,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광주시가 항소장을 제출, 다음달 하순 광주고법에서 재판이 이어진다.

2년5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U대회 선수촌 사용 지급 소송도 광주시와 조합 측 모두 항소하며 장기화되고 있다. 양측은 각각 지난 14일과 17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했다.

양측은 선수촌 사용에 따른 입주 지원 기간과 지급 대상 범위, 이자비용 지급과

선수촌 사용 임대료 지급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년5개월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29일 “광주시와 U대회 조직위·광주도시공사가 화정주공 아파트주택재건축특례사업조합에 83억 6668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감정가를 바탕으로 443억원을 요구한 조합과 23억원을 제시했던 광주시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였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

민 656명이 2015년 9월 광주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계류 중이다. 이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초로 예정돼 있다.

또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등 신탁회사 3곳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상대로 지난 4월 26일 광주광역시 공고 제 2017-1181호로 공고한 ‘광주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 접수 공고’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오광록기자 kroh@



광주시가 해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기간 선수촌으로 사용했던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전경. 광주시는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이 아파트 조합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 농작물 가뭃피해 3000ha ... 복구비 26억

신안 928ha 최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남지역에만 3000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5~6월 가뭄에 따른 고사 등 전남지역 농작물 피해면적이 총 2923ha였다. 신안이 928ha로 피해가 가장 컸고, 진도 731ha, 무안 643

ha, 영광 253ha, 해남 168ha, 영암 98ha 등이었다.

작목별로는 벼가 2493ha로 전체 피해면적의 85.3%를 차지했다. 벼 고사 피해는 진도가 714ha로 가장 심했고, 신안(641ha)·무안(636ha)도 600ha가 넘었다. 대파 피해는 313ha, 고구마는 100ha에서 피해를 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심정지환자 회복률 1위

이들 피해농가는 농약대·대파대·생계지원 등의 복구 지원을 받는다.

지역별 복구비는 신안이 13억1100만원, 영광 4억2000만원, 해남 4억100만원, 진도 2억9800만원, 무안 1억8500만원 등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피해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2주간 연장해 꼼꼼히 조사했다”며 “농식품부에서 예비비가 내려오면 8월 중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심정지환자 회복률 1위

시 소방안전본부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1일 “올해 상반기 심정지환자에 대한 스마트리도 자발순환 회복률이 전국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리도지도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스마트폰 영상통화로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아 병원 응급실 수준의 전문심장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2015년 8월부터 스마트리도지도를 본격 운영해왔다.

광주 119구급대원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261명의 심정지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 영상 의료지도를 받아 41명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이에 따른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은 15.7%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전국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이 6.6%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2.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빛원전 철폐부식·공간 발생 안전성 심각”

광주시의회 성명

광주시의회는 지난 31일 성명을 내고 한빛원전 4호기의 돔 형태의 격납 건물 내부 철폐 부식과 콘크리트 빈 공간(공극)이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시의회는 성명을 통해 “돔 형태의 원자로 격납 건물은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한

원전의 최후 방호벽에 해당하는 곳으로 완벽한 기밀성(氣密性)과 안전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연구성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정부와 원전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증에 속속히 시행하고, 시공 잘못과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을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또 4호기와 같은 공범으로 건설된 5,6호기에 대해서도 안전조치 후 가동할 것을 요구하고 한빛원전 유사시 즉각 광주시와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신속대응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한편, 한빛원전 4호기에서는 최근 상부 원형 돔과 하부 경계지점에서 가로 14cm 세로 20cm 크기 샘플 58개를 채취한 결과 57개에서 공극이 발견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정과제로 본 광주 미래 ②전장산업·자율주행차 육성

IoT·전장부품 결합 미래 車시장 연 25% 성장, 1만명 고용 창출

빛그린·광주첨단산단에 국비 등 3000억 들여 커넥티드 부품 센터 건립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전략 4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6개 과제 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자동차 산업이 지역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 새로운 수익 창출은 지역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미래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텔레매틱스,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 등 전기·전자·정보기술(IT) 장치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자율주행차와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등을 융합한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신뢰성 전장부품 기술개발 체계 구축과 지역에 자리한 엘지이노텍, 한국알프스,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엠코코리아 등 전장전문기업을 뒷받침할 중요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방침이다. 우선 국비 2000억원 등 300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 국가산단, 광주첨단산단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IoT(사물인터넷)·센서, 카-비니언스 소프트웨어, 지능형 공조, 디스플레이 등의 기술개발 등을 맡을 커넥티드 전장부품 기술지원센터 및 전장기술연구소를 건립한다. 시제품 제작, 신뢰성 테스트, 마케팅, 창업엑셀러레이터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원기관과 관련 기업들로 산업단지를 구성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에 특화된 광산업 및 스마트기전산업 연구 인프라 및 관련 기업이 다수 자리하고 있어 광주가 전장부품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는 점을 정부에 꾸준히 강조한 바 있다.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등 8개 지원기관과 삼성전자, 동부대우전자, 엘지이노텍, 한국알프스, 엠코코리아 등이 대표적이다.

시는 국정과제가 완료되면 관련 부품의 최첨단 기술 확보, 미세먼지, 스마트팩토리, 액티브에이징, 문화컨텐츠 산업 연계 발전으로 1만명 고용 증대,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안전성, 고효율성, 고감성은 미래 자동차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IoT와 전장부품이 결합된 미래 자동차시장은 향후 2021년까지 연평균 24.9%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 자동차 기술 중 안전 분야가 타 분야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고 자율주행 분야의 경우 연평균 증감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시간 확대

연간 480시간→600시간으로

광주시는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빚어지는 가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찾아 1대 1로 안전하게 아이를 돌봐주는 것은 물론 놀이 활동, 급·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안전 관리 등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그동안 지원사업 대상 가정에 연 480시간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를 지난달 26일부터는 600시간까지 늘렸다. 이는 정부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조치로 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다.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은 생후 3개월

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6500원으로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단(전화 1577-2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정부가 연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을 모두 사용한 가정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48시간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황인숙 광주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에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양육부담을 덜게 되는 것은 물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으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전남 “고흥”에서 “바다양식 어장”을
경영할 청년을 찾습니다

“고소득”을 올릴수 있는 “양식어장”을
5년간 제공해 드립니다

- 창업어장 확보: 565ha (김 500ha, 미역 40ha, 가리비 25ha)
- 연령제한: 만 45세 이하, (가족동반 우대)
- 신청기간: 2017. 8. 1 ~ 9. 30 (2개월)
- 상담기관: 전라남도 고흥군청 해양수산과 ☎ 061-830-5258,5412

지붕없는 미술관 고흥에서 행복한인생을 살려주세요

GOHEUNG GUN
지붕없는 미술관